

ISSUE BRIEFING

2019. 04. 23

Vol. 193

2019

ISSUE BRIEFING

연구진

김시백_산업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

지역소득 역외유출 진단과 대응방향



지역소득 역외유출 진단과 대응방향

CONTENTS

요약	01
01 지역소득 역외유출 이슈	02
02 전라북도 지역소득 역외유출 현황	04
03 시사점 및 대응 방향	14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주소_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밭길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약

- 전라북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주된 원인은 근로소득 유출, 기업소득 유출, 재산소득 유출과 타 지역 재화/서비스 소비로 구분됨
- 전라북도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은 순유출 발생지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지역소득 자체가 낮아 발생하는 착시현상에서 비롯되었으며, 유출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
 - 2017년 기준 전라북도의 지역소득 유출규모는 3.7조원으로 순유출 지역 중에서는 유출 규모가 가장 작음
 - 하지만, 1인당 GRDP와 GRNI가 순유출 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기에 역외유출이 지역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큼
 -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의 주된 원인은 분공장 및 지사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이들의 기업소득이 대부분 본사가 있는 타 지역으로 귀속되기 때문임
 - 또한, 전라북도 주민들의 소비행태 중에서 전라북도 내에서의 소비보다 수도권 및 광주에서의 소비규모가 더 크고, 지역간 이·출입 현황에서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어 타 지역으로의 자본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지역 산업과의 전후방산업연관효과가 높은 기업 본사 유치 전략과 함께 지역 향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본사형 지역경제 구축**
 - 인적자원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생산성 향상**
 - 지역화폐 도입 및 지역 소비인프라 구축을 통한 **순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

I. 지역소득 역외유출 이슈

1. 지역소득 모니터링의 필요성

◎ 지역경제 선순환 성장을 위한 조건

- 지역경제 성장정도를 측정하는 통계지표는 대표적으로 GRDP(지역내 총생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내의 생산 및 고용, 인구 등과 같은 양적지표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러한 지표는 지역경제 성장단계가 성장 초기이거나 고도로 성장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상대적으로 경제 및 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이들 지표 개선이 최우선 정책 목표라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지역경제 성장이 점점 둔화되면서 안정화단계에 접어들면, 소득의 분배문제나 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양적지표인 GRDP 뿐만 아니라 질적지표인 GRNI(지역민 총소득)¹⁾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요하게 됨
- 지역경제는 생산→분배→지출→생산의 선순환구조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선순환구조에서 외부불경제로 인한 미스매칭이 발생할 경우, 지역경제 성장은 양적 및 질적 성장의 불균형으로 인해 성장동력을 잃게 됨
 - 예를 들어, 지역내 생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지역민에게 귀속되는 비율이 낮을 경우, 지역민의 실질소득 정체 혹은 소득 체감도 하락으로 인해 지출규모는 줄어들게 되고 이는 다시 지역내 생산수요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성장에 한계로 작용함
 - 또 다른 경우로 지역내 생산으로 인한 소득이 지역민의 실질소득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역민의 소비가 타 지역 생산 재화·서비스 소비비율이 높을 경우에도 지역내 생산수요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타 지역에 종속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게 됨
- 따라서 지역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측면에서의 양적지표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 및 소비 측면에서의 질적지표 변화를 체크하여 지역내 선순환구조를 갖출 수 있는 정책수단 개발이 필요함

1) 지역민 총생산(GRP: Gross Regional Product)라고도 함

지역소득 역외유출 진단과 대응방향

◎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이슈 부각

- 지역소득통계는 한 지역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에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통계²⁾로 지역내총생산(GRDP)과 지역민총소득(GRNI) 등으로 제시되고 있음

- 지역내총생산(GRDP)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으로 정의되는 반면, 지역민총소득(GRNI)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 지역 주민들에 의해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격 합으로 정의됨

산출액		지역내총생산(GRDP)				중간소비
지역내 총생산 (GRDP)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세	고정자본 소모
			요소소득			
지역내 순생산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세	
			요소소득			
지역민 총소득 (GRNI)	순수취 요소소득	순수취 재산소득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세	고정자본 소모
	역외 순수취본원소득					
지역민 순소득	순수취 요소소득	순수취 재산소득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세	
	역외 순수취본원소득					

출처 : 허문구 외 2인(2015), 지역소득 역외유출경로 추적과 생산·분배소득 격차 요인 분석-경남지역의 생산·분배소득을 중심으로-, 경남경제리뷰

〈그림 1〉 지역소득통계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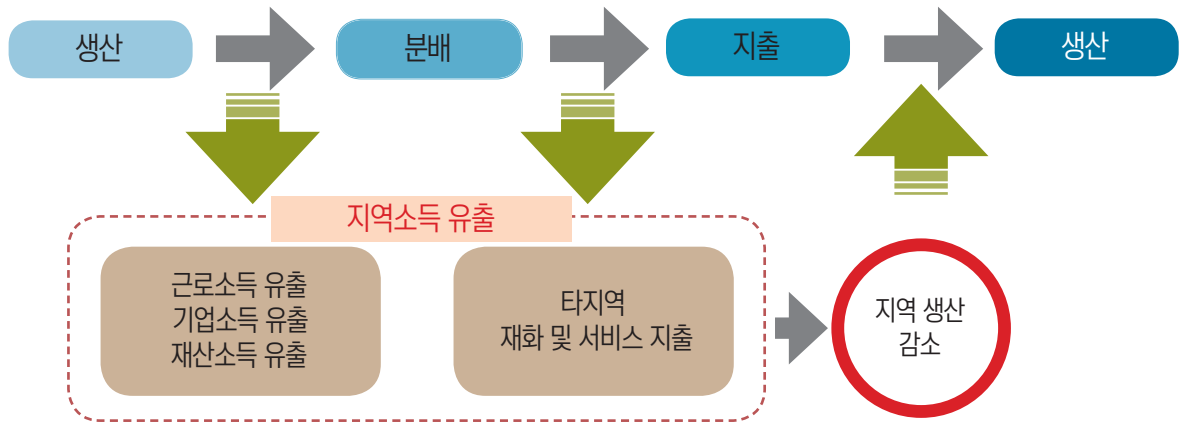
- <그림 2>와 같이 지역내총생산과 지역민총소득의 차이는 역외 순수취본원소득의 크기만큼 발생하며, 이 차이는 지역소득의 유·출입의 규모로 해석할 수 있음
- 최근 전북 도내에서도 전북의 지역소득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함
 - 산업연구원에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로 지역소득 역외유출 현상이 발생하고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³⁾

2. 지역소득 역외유출 유형

- 소득의 역외유출 유형은 <그림 2>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2) 통계청(2018), 2017년 지역소득(잠정)

3) 조성민(2018),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산업경제분석, 산업연구원



〈그림 2〉 지역소득 역외유출 유형

- 생산→분배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 역외유출 유형은 근로소득 유출, 기업소득 유출, 재산소득 유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은 근무지와 거주지의 직주 불일치, 기업소득은 본사와 분공장·지사·영업소의 지역입지 불일치에 의해 유출이 발생하며, 재산소득의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설비 등 투자에 따른 금융소득의 차이에 의해 발생함
- 분배→지출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 역외유출 유형은 해당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보다 타 지역 생산물을 더 많이 소비할 경우 발생함
- 단계별 소득유출이 발생할 경우, 지역 산업의 총생산 수요 감소로 연결되어 GRDP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됨

II. 전라북도 지역소득 역외유출 현황

1. 역외 소득유출 규모 비교

◎ GRDP, GRNI 비교

- 2017년 기준 전라북도 역외 소득유출 규모는 GRDP와 GRNI의 차이로 계산할 수 있는데, 역외 소득유출 규모는 3.7조원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16개 시도 중에서 8번째의 규모임
- 지역소득 유출의 양적 측면에서 충남(28.0조원), 경북(16.7조원)에 비해 작은 규모로 지역소득 유출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음
 - 순유출이 심한 지역은 수도권 인접(충남, 충북)과 광역시 인접(경북, 경남, 전남)임

지역소득 역외유출 진단과 대응방향

- GRDP와 GRNI 격차에 따른 역외 소득유출의 주된 원인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주된 요소는 근로소득 유출과 기업소득 유출임
 - 충남·충북 : 근로소득 유출과 기업소득 유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 전남·경북·경남 : 근로소득 유출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
 - 울산 : 기업소득 유출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
- 전라북도의 경우 직주 불일치에 따른 근로소득 유출보다는 분공장·지사·영업소 중심의 기업 입지로 인한 기업소득 유출이 더 큰 지역임
- 1인당 경제지표로 분석할 경우, 전라북도는 지역 주민 1인당 202만원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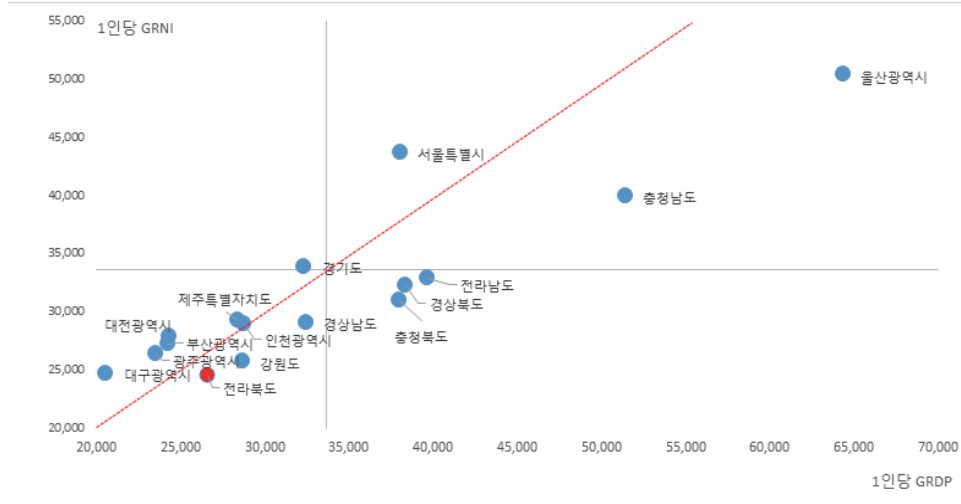
〈표 1〉 지역별 지역소득 유출 현황(2017년 기준)

지역	GRDP		GRNI		소득 역외 순유출입		1인당 GRDP		1인당 GRNI		1인당 소득 역외 순유출입	
	금액 (조원)	순위	금액 (조원)	순위	금액 (조원)	순위	금액 (천원)	순위	금액 (천원)	순위	금액 (천원)	순위
서울	372.1	2	426.8	2	54.7	1	38,062	5	43,655	2	5,593	1
부산	83.3	7	93.3	5	10.0	4	24,293	14	27,199	12	2,906	4
대구	50.8	11	60.8	8	10.0	3	20,605	16	24,680	15	4,075	2
인천	84.1	6	84.6	7	0.5	8	28,757	9	28,928	10	171	8
광주	35.4	15	39.6	14	4.2	6	23,565	15	26,375	13	2,810	5
대전	37.3	14	42.6	13	5.3	5	24,361	13	27,826	11	3,465	3
울산	75.1	8	58.7	10	-16.4	14	64,410	1	50,328	1	-14,082	16
경기	414.3	1	433.8	1	19.5	2	32,347	8	33,868	4	1,521	6
강원	43.7	13	39.0	15	-4.6	10	28,703	10	25,671	14	-3,032	10
충북	61.3	10	49.9	11	-11.5	11	38,031	6	30,926	7	-7,105	14
충남	124.4	3	96.4	4	-28.0	16	51,491	2	39,913	3	-11,578	15
전북	48.6	12	44.9	12	-3.7	9	26,569	12	24,550	16	-2,019	9
전남	71.2	9	59.0	9	-12.2	13	39,658	3	32,879	5	-6,779	13
경북	103.0	5	86.3	6	-16.7	15	38,406	4	32,177	6	-6,229	12
경남	109.0	4	97.4	3	-11.6	12	32,479	7	29,018	9	-3,461	11
제주	18.0	16	18.5	16	0.5	7	28,420	11	29,218	8	798	7

출처 : 통계청(2019), 지역소득(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C61&conn_path=I3)

- 이는 지역소득이 유출되는 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전북의 경우 1인당 순유출보다 1인당 소득이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그림 3>를 보면, 소득 유출이 발생하는 지역은 기준선(빨간색)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지역들로 전라북도의 경우, 소득 유출 지역 중에서 1인당 GRDP 및 GRNI가 모두 낮은 지역에 해당함
- 즉, 지역의 생산 소득 자체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출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으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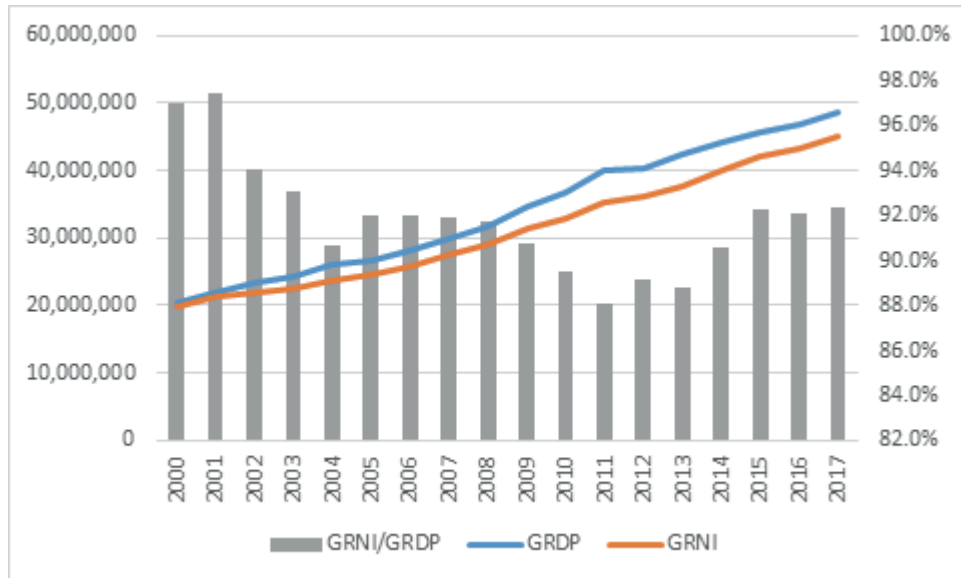
는 지역산업정책에서 아직까지는 GRNI보다는 GRDP를 높이는 양적 성장정책이 유효하다는 점을 시사함



〈그림 3〉 지역별 1인당 GRDP Vs. GRNI

◎ 2000년 이후 역외 소득유출 현황

- 2000년 이후 전라북도의 지역 소득유출 현황을 보면, 2000년에는 GRNI/GRDP는 97.0%로 GRDP의 3%(0.6조원)만이 순유출이 발생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순유출 규모가 계속 증가하여 2013년 GRDP의 11.2%(4.8조원)에 이룸
- 이후 꾸준히 GRDP의 8% 규모의 지역소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음⁴⁾



〈그림 4〉 연도별 전라북도 지역소득 유출 현황

2. 역외 소득유출 원인 분석⁵⁾

◎ 근로소득 유출 정도

- 근로소득의 유출 정도를 유추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통계자료로 순통근유출인구를 들 수 있음
- 순통근유출인구는 해당 지역내에 거주하는 취업인구(타 지역 취업 포함)와 해당 지역내에 취업한 인구(타 지역 거주 포함)의 차이로 구할 수 있음
 - 만약 지역거주 취업인구가 지역근무 취업인구보다 많다면, 타 지역에서의 생산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 해당지역으로 유입되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 근로소득 유출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 2015년 기준 순통근유출인구가 -1,458명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전라북도에서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임
- 하지만 순통근유출인구가 많은 지역(서울, 충남, 전남, 경북, 경남)에 비해서 유출규모 및 인구 대비 비율 측면에서 매우 낮기 때문에 직주 불일치에 따른 근로소득 유출규모는 작은 것으로 추정됨

〈표 2〉 지역별 순통근유출인구(2015년 기준)

지역	순통근유출인구			순위
	지역거주 취업인구	지역근무 취업인구	순통근 유출인구	
서울	4,704,568	5,423,139	-718,571	1
부산	1,525,412	1,454,981	70,431	13
대구	1,081,625	993,519	88,106	14
인천	1,363,924	1,177,561	186,363	15
광주	649,556	600,516	49,040	12
대전	686,900	648,616	38,284	11
울산	544,141	566,412	-22,271	6
경기	5,840,805	5,227,324	613,481	16
강원	712,012	720,382	-8,370	8
충북	752,702	773,472	-20,770	7
충남	1,045,806	1,118,506	-72,700	3
전북	820,664	822,122	-1,458	9
전남	870,571	919,563	-48,992	4
경북	1,290,109	1,389,561	-99,452	2
경남	1,574,475	1,617,685	-43,210	5
제주	312,660	312,748	-88	10

출처 : 통계청(2016), 인구총조사(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C1511&conn_path=3)

4) 경남은 GRDP의 27.2%, 충남은 22.5%, 울산은 GRDP의 21.8%가 유출됨(2017년 기준)

5) 현재 통계청이 공표하는 지역소득 통계자료에는 분배계정의 경우 근로소득과 기업소득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생산계정에서는 이를 합한 요소소득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기업소득의 지역의 유출입 규모를 계산할 수 없는 관계로 관련된 통계 자료로 유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기업소득 유출 정도

- 기업소득의 유출정도를 유추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통계자료는 지역 내 사업체 유형 중 본사 매출액 비중임
 - 지역 내 사업체 중 단독 사업체 및 본사의 매출액 비중이 높을 경우, 기업소득이 지역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분공장·지사의 매출액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지역소득의 일부가 본사가 입지해 있는 지역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전라북도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단독 사업체 및 본사 비중은 95.2%, 종사자 비중은 81.4%로 전국 평균 95.4%, 82.7%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
- 하지만 매출액 측면에서 전라북도는 53.2%로 전국 평균 63.9%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라북도 지역생산에서 분공장·지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즉, 분공장·지사가 얻는 소득의 일부가 본사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소득의 유출로 연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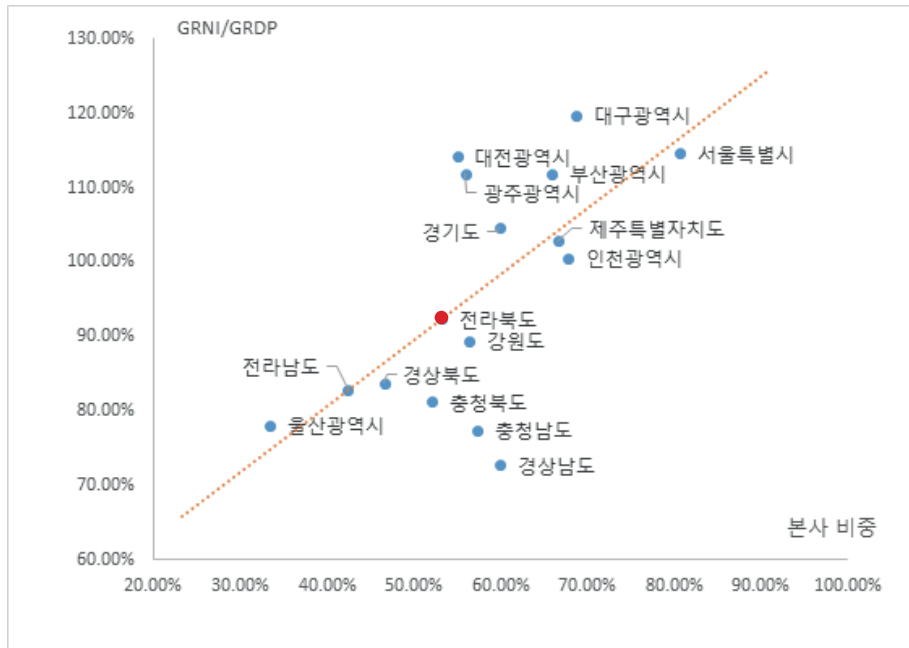
〈표 3〉 지역별 사업체 중 본사 비중(2015년 기준)

지역	지역별 본사(단독사업체 포함) 비중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영업비용
서울	95.37%	84.58%	80.59%	80.53%
부산	95.24%	82.81%	65.86%	65.35%
대구	95.87%	83.77%	68.66%	67.90%
인천	95.73%	84.50%	67.72%	67.78%
광주	94.97%	80.43%	55.88%	54.84%
대전	94.78%	79.51%	54.95%	55.00%
울산	95.22%	75.14%	33.39%	34.19%
경기	95.21%	81.92%	59.85%	60.21%
강원	95.30%	83.47%	56.27%	56.36%
충북	95.11%	80.31%	52.02%	52.72%
충남	95.36%	80.54%	57.29%	57.77%
전북	95.23%	81.41%	53.21%	53.54%
전남	95.44%	84.40%	42.42%	42.85%
경북	95.68%	80.58%	46.60%	47.57%
경남	96.02%	84.05%	59.88%	58.51%
제주	95.51%	85.72%	66.52%	65.26%

출처 : 통계청(2016), 경제총조사(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11516&conn_path=I3)

- <그림 5>을 보면, 16개 시도의 지역 내 단독사업체 및 본사 매출액 비중이 높을수록 GRNI/GRDP 비율이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지역경제에서 본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타 지역으로의 기업소득 유출보다는 소득 유입이 더 크다는 점을 보여줌

지역소득 역외유출 진단과 대응방향



〈그림 5〉 지역소득 유출규모와 지역 내 본사 매출액간의 관계

3. 역외 소득유출이 지역소득에 미치는 영향

- 2000년 이후 전라북도의 1인당 GRNI에 역외 소득유출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1인당 GRNI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요인분해하여 각 요인별 영향력⁶⁾을 분석함⁷⁾
- 분석 결과, 전라북도에서 타 지역으로의 소득유출로 인해 전라북도 1인당 GRNI는 약 6%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2000년 이후 전라북도 1인당 GRNI는 실질소득 기준으로 7.8백만원 증가하였는데, 이 중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5.9백만원 증가, 취업률 제고로 2.5백만원 증가 효과를 얻었지만, 지역소득 유출로 인해 0.5백만원 줄어드는 영향을 받음
- 소득유출로 인해 1인당 GRNI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지역은 경상남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유출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는 작은 것으로 나타남

6) ① 지역소득 유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일수록 지역 내 주민에게 분배되는 소득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1인당 GRNI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② 노동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지역 내 주민에게 분배되는 소득의 절대적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1인당 GRNI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③ 지역 내 취업률이 높아질수록 지역 내 소득 분배 비중이 높아져 1인당 GRNI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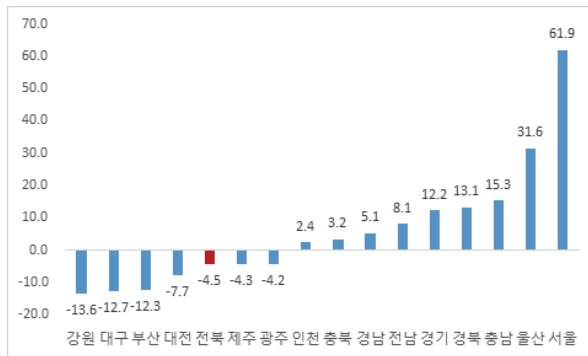
7) 다른 요인들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특정 요인의 변동량이 1인당 GRNI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다음의 식과 같음(1인당 GRNI(지역 총소득/지역 총인구) = ① 지역소득 유출(지역 총소득/지역 총생산) × ② 노동생산성(지역 총생산/취업자수) × ③ 취업률(취업자수/지역 총인구)

〈표 4〉 지역별 1인당 GRNI에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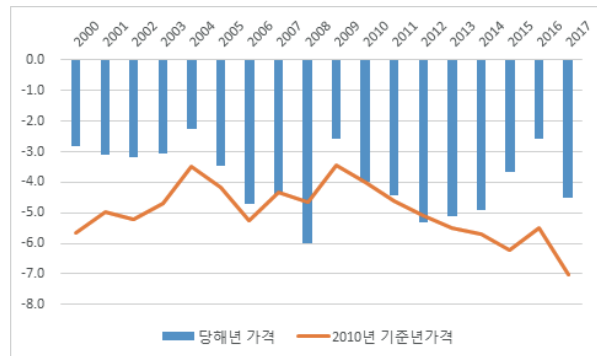
지역	1인당 지역소득 변동에 미친 영향 (단위 : 백만원)				1인당 지역소득에 미치는 영향력(단위 %)		
	지역소득 변화량	지역소득 유출	노동생산성 향상	취업률 제고	지역소득 유출	노동생산성 향상	취업률 제고
서울	15.6	1.2	10.6	3.8	7.7	67.7	24.5
부산	8.9	-1.2	7.9	2.2	-13.6	88.9	24.8
대구	7.5	-0.5	5.3	2.7	-6.5	70.8	35.8
인천	11.1	1.3	6.2	3.6	11.6	56.0	32.4
광주	8.8	0.2	4.7	4.0	2.6	52.6	44.8
대전	9.1	1.1	4.2	3.7	12.1	46.8	41.1
울산	9.7	-2.8	5.6	6.8	-28.5	58.1	70.4
경기	9.9	-4.6	10.5	4.0	-45.9	106.0	40.0
강원	8.6	-0.1	5.7	2.9	-0.9	66.7	34.2
충북	11.8	-2.9	10.8	4.0	-25.1	91.4	33.7
충남	22.1	-3.1	22.1	3.1	-14.1	100.0	14.1
전북	7.8	-0.5	5.9	2.5	-6.0	74.6	31.5
전남	12.8	-0.1	10.7	2.2	-1.1	83.6	17.4
경북	11.3	-3.2	12.4	2.0	-28.0	109.9	18.1
경남	4.3	-5.1	6.9	2.6	-117.8	158.8	58.9
제주	10.9	0.1	7.4	3.4	1.3	67.8	31.0

4. 재화 및 서비스 순이출 현황

- 지역경제 구조에서 생산→분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유출은 GRDP와 GRNI의 격차로 설명할 수 있으며, 분배→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유출은 재화 및 서비스 순이출 현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⁸⁾



〈그림 6〉 지역별 재화 및 서비스 순이출



〈그림 7〉 전북 연도별 재화 및 서비스 순이출

8) 재화와 서비스 순이출이 음의 값을 가진다면, 전북도민이 타 지역 생산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지출하는 규모가 도내 생산품이 타 지역에서 지출되는 규모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민의 소득이 타 지역으로 지출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경제에서의 수출입 관계와 같다고 볼 수 있음

지역소득 역외유출 진단과 대응방향

- 전라북도의 재화 및 서비스 순이출 규모는 2017년 기준 -4.5조원으로 타 지역으로부터 생산물이 유입되는 비중이 높은 지역임
- 2000년 이후 순이출 현황을 보면, 꾸준히 타 지역 생산 재화 및 서비스 지출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실질가격 기준으로 순이출 규모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전라북도 내 산업의 생산수요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GRDP 감소와 함께 GRNI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임

◎ 지역별 순이출 규모

- 전라북도 주민들이 어느 지역 생산 재화 및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는지를 파악한 결과, 서울에서 생산된 서비스 소비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 경기도 생산 서비스와 충남 생산 재화에 대한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즉, 전라북도 주민들의 소득 일부가 타 지역으로 지출되면서 전북 산업수요보다는 타 지역 산업수요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어 지역상품 소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점에서 최근 전북의 지역상품권 소비의 활성화는 매우 의미있는 시책으로 평가됨

〈표 5〉 전북 - 타 지역간 순이출 현황

지역	전북 - 타 지역간 순이출 규모(단위 : 백만원)		
	재화	서비스	총합
서울	2,105,054	-3,903,949	-1,798,894
인천	368,587	-325,947	42,641
경기	332,411	-954,632	-622,221
대전	143,468	-68,489	74,979
충북	132,342	-9,000	123,343
충남	-311,202	-170,840	-482,043
광주	158,346	-325,176	-166,830
전남	139,203	81,948	221,151
대구	452,213	-51,885	400,327
경북	-17,157	-107,158	-124,315
부산	578,936	-122,837	456,099
울산	-205,842	-10,714	-216,556
경남	189,667	-105,750	83,917
강원	86,535	-91,220	-4,685
제주	146,741	-229,717	-82,976
순이출 합계	4,299,302	-6,395,366	-2,096,064

출처 : 한국은행(2015), 2013년 지역간산업연관표

- 재화의 경우, 제조업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최종 생산품에 대한 지출이기 때문에 지역간 산업 특화도에 따라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순유입이 많을 수도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 울산(자동차), 충남(석유제품), 경북(전자제품)으로부터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제조업 재화는 타 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량보다 타 지역으로 소비되는 물량이 많아 소득 유입 효과가 발생하는 지역임
- 하지만 서비스의 경우, 지역민의 생활에 밀접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소비가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수도권 및 광주 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높음
 - 서비스 분야에서 순유입(부호가 -)이 발생한다는 것은 타 지역 주민이 전북 서비스 상품을 소비하는 규모보다 전북 도민이 타 지역을 방문하여 서비스 상품을 소비하는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함
- <표 6>을 보면, 서비스 산업별로 타 지역간의 순이출 현황을 볼 때, 전북 주민의 소득이 서울로 많이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소매, 정보통신, 보건복지 분야에서 순유입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도소매, 음식숙박, 문화) 현황에서도 타 지역 주민이 전북 관광으로 지출하는 것보다 전북 도민이 타 지역 관광으로 지출하는 것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북도민의 지역내 서비스 지출을 활성화하여 소득유출을 줄이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

<표 6> 산업별 전북 - 타 지역간 순이출 현황

지역	전북 - 타 지역간 순이출 규모(단위 : 백만원)								
	도소매	음식숙박	정보통신	금융	전문과학	사업지원	교육	보건복지	문화
서울	-946,386	91,452	-529,085	-181,997	-24,772	-472	-75,937	-110,603	-123,145
인천	-22,126	-82,472	-2,957	12,914	-10,364	-331	-609	-12,335	-1,823
경기	-84,728	-52,099	-155,879	4,949	144,016	3,731	17,937	-34,812	-118,087
대전	-17,551	-34,795	364	3,228	-24,760	128	21,755	-19,150	-8,203
충북	15,318	-20,929	-468	8,512	-6,484	-417	19,991	-3,816	-5,878
충남	12,269	-8,761	12,120	7,037	-22,573	-280	31,959	3,868	-186,866
광주	-74,800	-8,779	-14,452	-73,242	-37,012	-8,512	-52,824	-38,892	-18,804
전남	4,160	4,854	1,081	46,458	73,443	-2,107	-2,943	-19,989	18,901
대구	-35,444	-1,713	-904	-1,670	-5,997	19	-1,358	-1,055	594
경북	16,968	-6,577	277	4,378	-110,635	30	837	-1,861	-859
부산	-82,569	-1,514	-5,707	850	647	372	-11,253	-3,923	-372
울산	15,428	-22,140	91	435	803	-48	-4,914	-1,118	5
경남	4,882	-21,552	-86	2,476	6,049	-284	10,724	-1,181	-4,370
강원	-8,940	-49,242	-41	2,592	-2,011	267	6,789	-905	-36,618
제주	-4,751	-53,926	-9,625	-12,135	36,265	-1,255	4,109	-331	-34,330
합계	-1,208,271	-268,193	-705,273	-175,216	16,614	-9,159	-35,736	-246,103	-519,855

출처 : 한국은행(2015), 2013년 지역간산업연관표

5.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불균형 현황⁹⁾

- 2000년 이후 지역의 생산, 분배(소득), 지출계정의 연평균 성장률을 시도별로 비교한 결과, 전라북도의 분배계정 성장률이 16개 시도 중 14위로 낮은 지역소득 성장을 보임
-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형성여부를 파악한 결과¹⁰⁾, 타 시도에 비해서 생산, 소득, 지출이 비교적 균일하게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소득성장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순환구조가 깨질 우려 발생

〈표 7〉 지역별 경제 선순환 구조 괴리 현상

지역	200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			평균 ①	표준편차 ②	괴리도 ②/①	괴리도 순위
	생산	분배(소득)	지출				
서울	5.10%	5.75%	5.45%	5.43%	0.33%	6.00	6
부산	5.12%	4.99%	4.60%	4.90%	0.27%	5.53	8
대구	4.87%	4.96%	4.77%	4.87%	0.10%	1.96	15
인천	6.40%	6.93%	5.83%	6.39%	0.55%	8.66	3
광주	5.96%	5.97%	5.79%	5.91%	0.10%	1.71	16
대전	5.76%	5.79%	6.18%	5.91%	0.23%	3.92	10
울산	5.33%	4.87%	6.18%	5.46%	0.67%	12.21	2
경기	7.57%	7.16%	7.18%	7.30%	0.23%	3.15	11
강원	5.54%	5.35%	5.96%	5.62%	0.31%	5.55	7
충북	6.71%	6.28%	5.88%	6.29%	0.41%	6.55	5
충남	8.34%	8.29%	7.14%	7.92%	0.68%	8.53	4
전북	5.19%	4.89%	5.07%	5.05%	0.15%	2.96	13
전남	5.08%	5.22%	4.93%	5.08%	0.14%	2.83	14
경북	5.30%	5.22%	4.99%	5.17%	0.16%	3.11	12
경남	5.64%	4.56%	5.77%	5.32%	0.66%	12.41	1
제주	7.14%	7.02%	6.58%	6.91%	0.30%	4.28	9

출처 : 통계청(2019), 지역소득 자료 가공

9) 국민소득은 생산→분배→소비의 순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각 측면에서 측정된 국민소득은 이론적으로는 일치해야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는 지역간 생산요소 및 재화의 이동이 자유로워 각 계정간에 괴리가 발생

10) 안세현(2013)의 「생산·소득·지출 계정간 괴리도 분석」 방식을 이용

Ⅲ. 시사점 및 대응 방향

1. 시사점

- 지금까지 지역에서 기업 유치와 창업 활성화를 통해 GRDP 향상 및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성장을 주도하였으나, 많은 지역에서 생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지역 주민에게 귀속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어 실질 지역소득 향상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GRDP 향상과 함께 이에 대한 소득이 역외유출되지 않고 지역민에게 귀속될 수 있는 지역발전 정책을 마련해야 함
- 전라북도의 지역소득 역외유출 현상은 양적인 측면에서 광역시를 끼고 있는 도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낮은 지역소득 증가로 인해 유출량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착시현상에서 비롯되었으며 유출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함
- 타 지역 생산물(서비스 포함) 소비가 많은 상황으로 지역소득 유출 뿐만 아니라 지역자본 유출도 발생하고 있어 지역 제품 소비 장려를 통한 생산유도 정책이 필요함
- 생산→소득→지출→생산의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는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소득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출 감소 → 생산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소득 유출을 최소화하면서 소득향상을 주도하는 정책 발굴이 필요함
 - 기업(분공장) 유치가 지역소득 유출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지만, GRDP 향상 및 취업률 제고에 따른 GRNI 증가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기업유치 전략에서 본사와 분공장 유치 전략을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음
- 지역소득 유출의 요인 중 영향력 크기에 따라 지역소득 유출방지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예1) 요소소득 중 피용자보수의 유출이 심한 경우 :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역내 거주 생태계 조성, 자체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등
 - 예2) 요소소득 중 영업잉여 유출이 심한 경우 : 본사 중심 기업유치 전략(인센티브 제공 등) 수립, 자생적 향토기업 창업 지원 등
 - 예3) 재화 서비스 순수입이 큰 경우 : 복합쇼핑몰 혹은 물류유통기능 강화, 지역 교육 및 복지 서비스 질적수준 개선 등

2. 전라북도의 대응 방향

◎ 본사형 지역경제 구축 : 본사기능 유치 및 향토기업 경쟁력 강화

- <표 3>를 보면, 전라북도 내에 소재하는 본사(단독사업체)의 비중은 95.2%로 타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매출액 비중은 53.2%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이 약해 지역소득으로 귀속되는 규모가 작다고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업지원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기업유치 측면에서 분공장 혹은 사업소 개념의 기업유치보다는 본사 기능을 가진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며, 전라북도 내 전후방산업연관효과가 큰 기업 본사 유치를 집중해야 함
- 이와 더불어 기업육성 측면에서 지역 향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매출액을 높임으로써 지역소득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추진해야 함
- 하지만, 현재 도내 본사 기업수 비율이 타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며 타 지역간의 유치경쟁으로 인해 대기업 본사 유치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 전략을 통해 전북 고유의 본사형 지역경제를 구축해야 함

◎ 지역산업 체질 개선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

- 아직까지 전라북도는 소득유출로 인해 지역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는 타 지역에 비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소득유출을 줄이는 것보다 산업육성을 통한 생산소득(GRDP)을 높이는 것이 지역소득(GRNI)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
- 따라서 소득분배 이전에 지역의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산업 체질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지역 인적자원의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함

◎ 지역 선순환경제 생태계 구축 : 지역화폐 도입 및 지역 소비인프라 구축

- <표 5>과 같이 전북 도민의 소득 중 일부가 타 지역의 재화 및 서비스 지출로 인해 지역 소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화폐 도입이나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은 지역 내에서 자본이 지속적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지역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북에서는 이미 6개의 시군에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5개의 시군이 추가적으로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
 - 지역상품권은 아니지만, 전북투어패스 역시 타 지역 관광객 뿐만 아니라 전북 도민들이 도내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지역 내 관광 분야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 제도가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소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타 지역에서의 소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 분야(의료, 문화서비스)에 대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 범위를 넓히고 가맹점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박경(2012), 우리나라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 한국사회경제학회 여름학술대회 발표논문
- 박경(2016), 역외 소득 유출의 형태 및 방향과 지역 분배소득 통계의 신뢰성, 공간과사회 제26권 1호
- 배정민(2018), 대구지역 1인당 GRDP와 개인소득 수준의 차이 분석 및 시사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 안세현(2013),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이병기(2017), 고향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제도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성민(2018),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산업경제분석, 산업연구원
- 허문구 외 2인(2015), 지역소득 역외유출경로 추적과 생산·분배소득 격차 요인 분석 -경남지역의 생산·분배 소득을 중심으로-, 경남경제리뷰, 한국은행 경남본부
- 홍성호(2011), 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과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 충남리포트, 충남연구원
- 통계청(2019), 2017년 지역소득(잠정)
- 한국은행(2015), 지역간 산업연관표(2013년)



9 772508 688004
ISSN 2508-688X
www.jthink.kr

ISSUE BRIEFING
2019. 04. 23 **Vol. 193**